

개척자의 인격
(고린도후서 6:6-8a)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벤전 2:21).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방법으로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고난에 대한 바울의 자세

- **깨끗함:**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악하게 공격해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없이 깨끗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 **지식:**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도 억울한 고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거나 죄를 짓는다면, 영적으로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자비함:**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사람이 된 자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삶을 살아야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 **성령의 감화:** 악행은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악한 자의 공격을 이기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제압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악한 자와 반대로 행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 **거짓 없는 사랑:**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원수를 사랑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롬 12:9). 악한 자의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순수한 사랑을 베퉴 수 있습니다. ■ **진리의 말씀:** 바울은 진리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한 것입니다(갈 1:10).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러니 그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와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바울처럼 신앙 인격이 있어야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능력:** 누구나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외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가 신실하신 하나님도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신 것입니다. ■ **의의 무기:**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악한 자는 거짓과 속임수, 모함과 같은 불의의 무기로 공격합니다. 불의의 무기는 오직 의의 무기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로 파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온갖 고난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과 다른 영혼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한 죄를 짓습니다. 악간의 손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혈기를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혼과 교회를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골 1:24).

▣ 개척자의 이중성

- **영광과 욕됨:** 아무리 선한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잠 29:27).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중받은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는 모욕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벤전 4:14). 예수님은 감춰진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는 분입니다(눅 2:35).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을 영광스럽게 대우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바울을 모욕하고 박해했습니다. ■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전염병이나 쓰레기로 바울을 낙인찍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욕과 고난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마 5:11-12). 하나님은 박해를 상급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악한 자, 세상 사람의 인정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어떤 방법,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에 따라 열매와 상급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고난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감당함으로써 고난을 하늘의 영광과 상급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고난을 상급의 기회로 삼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의 인생을
人生이 바뀐다

거룩한복음 권자현 집사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인생 간증

기쁨의교회는 예배 때에 예수님으로 변화된 간증을 발표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훈육하신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제 잘못을 바라보시는 분처럼 느껴졌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제 눈앞의 현실과 인간관계가 더 중요시 되고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은 제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고, 가정을 잘 세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통제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점점 늘어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반복되었고, 결국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의 허락 없는 외부 활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누이를 통해 다시 듣는 말씀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메말라 있던 제 영혼에 말씀이 생명처럼 들어오기 시작했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환경을 먼저 바꾸

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던 제 영혼을 먼저 살리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문제와 제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며 이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 상황에서 나를 꺼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만나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하였던 제가, 말씀을 통해 오히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통해서 컴앤씨데이 예배를 시작으로 신앙하게 되면서 말씀은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 갔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다시 세워 가시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교회 알아가기와 교회생활 가이드는 단순한 교육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만 결단처럼 되지 않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와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크리오에서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는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연합함을 도와주시는구나'하고 믿음이 들어오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저를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제 안에 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주일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의 골리앗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마치 국가적인 재앙처럼 여기며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 안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강하고 강한 몸술 자가 바로 나왔구나. 내가 생각했던 국가적인 재앙이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붙들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길 원하고 부르짖으며 굴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 우리교회 알아가기를 통해 그 사랑을 실제 살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리로 저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강의중 셀에 진정한 역할을 전도임을 들으며 컸기간 영혼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동역할 때 얼마나 살아있는 생명력과 은혜속에 거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영혼과 전도에 대한 열정과 갈증이 밀려오는 듯 했고 첫강의 입사한 회사의 모든 이를 전도하겠다고 결단했던 청년시절의 목사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었고 두 달 전 배드민턴을 하며 잠시 인연을 맺었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베트남 자매님의 얼굴을 제 마음에 계속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자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세쌍둥이 아들과 자매님의 외동딸이 같은 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외동딸에게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셀에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힘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비록 삼림이라도 순종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개척의 일꾼이자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기쁨의 교회 뜻대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기쁨의교회 방송 설교 안내 - CTS TV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생명의 말씀
1) 케이블TV: 용인(기남방송 222번), 광주(C&M 700번) 2) IPTV: Sky Life 183번, KT olleh TV 236번, Btv 551번, U+ 180번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서울국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국동 방송 서울,경기: 106.9 MHz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영동국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국동 방송 강원 영동: 90.1 MHz

▶ 기쁨의 교회 사역전력



▶ 기쁨의 교회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안내

[지 하 철 / 버스]

- ▶ 신논현역 7번 출구 또는 강남역 5번 출구 → 1241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동일하이빌차 하차
- ▶ 구성역(수인분당선 GTX)3번출구 → 31, 33, 34-2, 670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동일하이빌차 하차

현금 온라인 계좌 안내

- | | | |
|-------------------|------------------|---------------|
| ● 주일현금 : SC제일은행 | 572-20-230777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십 일 조 : KEB하나은행 | 630-006691-277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감사현금 : SC제일은행 | 572-20-308622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건축현금 : 국 민 은 행 | 402601-04-012600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선교현금 : SC제일은행 | 572-20-179152 | 예금주 : 기쁨의교회 |
| ● 카라건축 : SC제일은행 | 572-20-305118 |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 ● 카라일반 : SC제일은행 | 572-20-305129 |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 ● 카라장학 : SC제일은행 | 572-20-321620 |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 기쁨이 쏟아지는 새시대 새교회 기쁨의교회 »

www.joyfulchurch.org

창립 30주년

2026년 교회 표어

하나가 되게 하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LET US BE ONE

JOHN 17:22

담임목사 정 의 호

제2026-35호 통권 6960호

8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기쁨의교회

교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6 Tel. 031-713-0691 Fax. 031-713-0692
MTC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119 Tel. 031-711-0191

